

■ 원희룡 도지사-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 첫 정책간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한 목소리’

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미래산업 유치 역할 당부
 오·위, 정부 관심 유도 위해 도정 새 전략 마련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제주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 속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와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및 미래 신성장동력 유치·육성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당선인들은 제주도정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1일 제주도청 분관 4층 탐라홀에서 원 지사와 제주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오영훈·위성곤 의원과의 첫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송재호 당선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만 언론에 공개됐다.

모두발언에서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국난 상황에서 어께가 무거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진영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 발전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 유치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제주 재정분권 핵심과제(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추진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지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국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무화제도(RPS) 개선 ▷드론규

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지원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도정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부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구체적 사업안 마련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건넸다.

오영훈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제주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 갈등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도정과 협력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제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1차 산업을 살리는 한편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에 제주대 약대를 유치하고 인근에 생약자원관리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연계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면 생약과 바이오 메카로 제주를 육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은범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위성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첫 간담자리를 가졌다.

이상국기자

수출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시동 도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기능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 지원사업 신청자의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기능을 보강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설치한 이 시스템은 수출 관련 사업신청 및 접수 등 이용에 제한이 있어 도내 수출기업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비 1억1300만

원을 투입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22일까지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의 시범운영하며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등을 도출, 12월까지 중점 개선에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각 기관별로 분리·관리 및 운영 중인 사업의 안배

▷공모 및 선정, 사후관리 등 모든 정보의 통합관리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도내 수출업체간 상시 매칭 및 거래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현 ▷수출기업 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등이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교육희망지원금’ 내달 지급된다 도의회 어제 임시회서 교육청 추경안 통과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 받은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석의원 34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35억원의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 2400여명 및 도내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선불카드를 주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근거

가 마련됐다. 지급 시기는 6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조례 개정 등의 이유로 7월쯤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연기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78억800만원 ▷환경교육 지원 1500만원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1억9425만원 ▷대안교육시설지원 5000만원 ▷통학버스운영지원 1억68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방역물품 확충·보급, 학교현장 안전망 구축, 교육희망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렵게 시작된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27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 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 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아·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 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대상 부문 및 상금

구분	포상내용	한라 환경 대상 시상	한라 환경 UCC 공모전
대상	1명(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팀)
최우수상	1명(팀)	상금 200만원	일반 및 대학
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고등부
학교 최우수상	1개교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1팀)
교사 최우수상	1명(팀)	상금 100만원	중등부
학교 부문 학생 최우수상	2명(팀)	중·고등부 50만원 초등부 50만원	최우수상 (1팀)
			초등부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적선거법에 따라 상정만 수여 함

선정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시상일자 및 장소 2020년 6월 12일(금) / 한라일보사(제주시 서서로 154)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접수마감 및 문의처 •2020년 5월 29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orca@hallailbo.co.kr)로 접수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 750-2523, 750-2540, 팩스 750-2520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27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희망